

대학생들의 애국심 · 통일 · 안보 의식수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Level of Veterans Related to Patriotism,
Unification, and Security of University Students

Tae Yeol Kim*

Yeungnam University College, 170 Hyeonchung-ro(Daemyeong-Dong), Nam-Gu, Daegu, Korea

Abstract

The study was performed by the development of patriotism, Unification, Security, and veterans Consciousness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suggest to level analysis of Veterans Patriotism, Persons Recognition, a Memory day, Unification and Security of University Students. The study questionaue methods was performed by Likert five point scale major focus was social demographic a characters of University Students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offer the basic data to the promotion patriotism, Unification and security spirit for University Students. he major result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The major significantly differences analysis of Patriotism University Students by social demographic special characters was shown significantly higher the male($P<0.001$) The significantly differences higher analysis about a military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P<0.001$). the Correlation significantly differences analysis of Patriotism, Unification and Security of University Students about age($P<0.01$), study grade division($P<0.01$), military experience($P<0.01$), veterans subject experience($P<0.01$) memory day($P<0.01$). the Correlation significantly differences analysis of veterans recognition about age($P<0.01$), study grade division($P<0.01$), veteran subject experience($P<0.01$). veterans law($P<0.01$), moved about person of merit($P<0.01$), treatment of person of merit($P<0.01$), nation contribution ratio of person of merit($P<0.01$) Unification desire($P<0.01$), economic development of person of merit($P<0.01$).

Key words: patriotism, unification, security, veterans consciousness

* Tel. +82-053-650-9285. E-mail. ktypv@naver.com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June. 8, 2014 / Revised: July. 6, 2014 / Accepted: Sep. 12, 2014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애국심 통일 안보의식을 파악하여 향후 보훈정책 수립 시 근거자료 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성별 보훈인물 인식도 수준 분석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애국심에 대한 인식도 분석은 남자의 경우 3.5점, 여자는 3.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보훈인식도와 관련한 상관관계 분석에서 보훈제도 인식과 학년간의 유의미한 수준이었고($p < 0.01$), 국가유공자의 기여도와 연령간 관계, 보훈단체 호감도와 보훈제도 인식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동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되었다($p < 0.01$). 보훈시설 방문과 보훈제도 인식도, 국가유공자의 기여도간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p < 0.01$). 국가유공자 처우와 연령, 학년 국가유공자 기여도, 보훈시설 방문간 유의한 상관관계($p < 0.01$), 보훈제도 인식도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성립되었다($p < 0.01$). 병역유무 국가유공자 기여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동, 보훈시설 방문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성립하였다($P < 0.05$, $P < 0.01$). 대학생 통일·안보 인식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에서 병역의무, 통일육구, 경제발전 기여도와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01$).

주제어: 애국심, 통일, 안보, 보훈의식

1.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로 60여년간 북한과의 정전 사태로 항상 안보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시민은 물론 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투철한 애국심 및 안보관 등 올바른 보훈의식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언론사와 방송에서는 다양한 보훈행사와 국가유공자 재조명 등 보훈과 관련해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훈행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심이 되어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등 주요 국가 기념일에 맞춰 수행되어져 왔으나 앞으로의 보훈 행사는 외국의 보훈 선진국과 같이 학생, 시민이 주축이 되어 국가유공자를 위한 존경심 함양과 다양한 보훈행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1년 7월 5일 군사원호청을 설립으로 60-70년대에 보훈급여금 지급에 중점을 두었고, 80-90년대에는 전국 보훈병원 설립으로 선진화된 의료지원 시스템구축,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유공자의 초고령화¹⁾로 인한 요양·복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의 보훈의 페러다임은 국가유공자의 자존감과 자긍심 함양을 위한 정신적 예우와 초·중·대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참여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보훈교육을 통한 애국심 함양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최근 세월호 참사를 살펴보다라도 평상시부터 국가재난에 대비해 정기적 응급재난대비 교육과 직업의식을 제대로 교육하고 모니터링 했으면 희생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매

1) 65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것을 의미

년 국민들의 보훈에 관한 인식도 즉 보훈의식지수를 조사하는데 최근 보훈의식 수준에 대한 대표적인 자료 2013년 국가보훈처에서 갤럽에 의뢰한 나라사랑의식조사를 근거로 2013도 의식수준을 살펴보면 2013년 79.1점으로 나타났는데 세부적 항목으로 살펴보면 납세 의무이행은 92점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보훈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국경일 태극기 게양은 6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보훈의식 수준을 살펴보면 2011년 67.5점, 2010년 67.6점, 2009년 64.0점, 2008년 61.5점으로 비교적 낮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보훈처에서는 청소년과 일반국민을 보훈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도적 법률적 마련을 위해 2012년 나라사랑교육지원법 제정을 수립하여 법안을 상정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여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아 명칭을 보훈교육지원법 그리고 내용을 수정하여 법안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보훈교육지원법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나라사랑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공훈 및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나라사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고양시켜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에서 “나라사랑교육”이란 청소년과 일반국민에게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 공훈, 역사 및 안보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여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국가에 대한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2012 국회 나라사랑지원법 제정 법안 내부 자료)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선행연구는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치중하였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김예솔 등(2008)이 대표적인 논문으로 대학생 보훈의식 향상에 관한 연구에서 보훈관련 인지적 태도, 정의적, 행동적 태도 등에서 유의미한 인과관계 중심으로 연구한바 대학생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애국심 및 통일·안보의식 수준 파악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2013년 한국갤럽에서 개발한 나라사랑의식지수 설문 문항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애국심·안보·통일 등 보훈의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보훈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 조사대상자는 경북지역 2개 대학, 대구지역 2개 대학 대학생 총 282명을 대상으로 리커트(Likert)의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본 조사는 역사에 대한 자부심 등 총 12문항과 보훈인식에 관한 질문은 보훈제도 이해 정도 등 7개 항목으로 하였다. 그 외 보훈인물에 대한 연구는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및 호국보훈인물로 인정한 대구경북 출신의 독립운동가 김창숙 애국지사 외 9명을 조사하였다. 보훈기념일은 정부기념일을 중심으로 3.1, 4.19, 6.6, 6.25, 8.15 기념일을 대상으로 하였다. 통일에 관한 설문은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 등 3개 항목, 안보분야는 연평도, 천안함, 북핵, 무인항공기 총 4개 항목에 대해 대학생들 의식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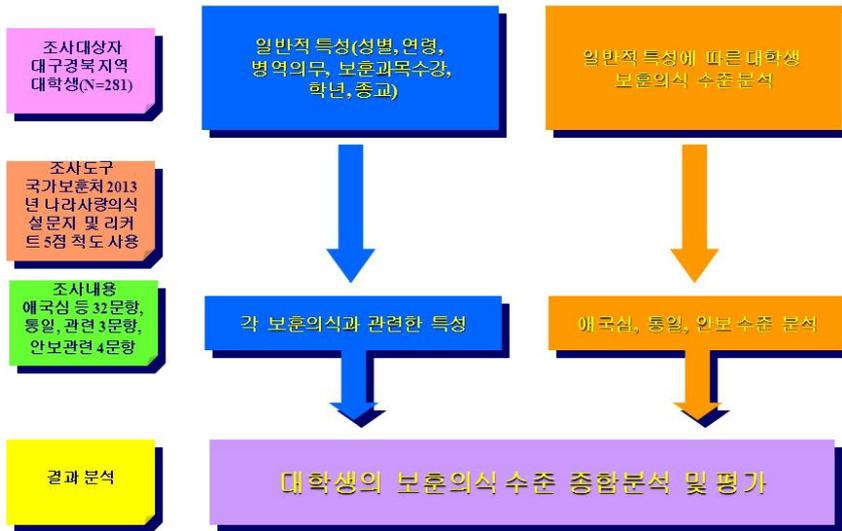
II. 선행연구 및 분석의 틀

1. 선행 연구

보훈과 관련된 외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Tyler(2006)는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국가의 일체감과 자긍심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고 있다. Newton(2007)의 경우 국가의 제도적 규범이나 여건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자긍심 및 애국심이 증대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Smith, et. al.(2006)는 2003-2004년 세계 33개국을 대상으로 국민 자부심을 조사한 결과에서 22위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그 외 캐나다 국민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는 Jeannotte & Aizlewood(1999)의 개인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국민적 자긍심도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나타내었다. 최근 국내 연구로는 목진휴·형시형·김희경(201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나라사랑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나라사랑 활동이 향후 실천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있었다. 한편 애국심 및 보훈교육의 중요성과 세부 방안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보훈과 나라사랑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보훈교육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립이 필요하고 일선 학교들의 보훈의식과 지식이 부족하고 교사연수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김은희, 2008; 안중현, 2001)고 주장하고 있다. 권기숙(2012)의 보훈의식 강화를 위한 국가 정체성 교육의 문제점 고찰에서 국가정체성은 보훈의식의 함양의 핵심 요소로 인식 우리나라는 시대착오적 소모적 좌우 이념 갈등 더욱 첨예하게 대립되어 국가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애국심은 본래 인간이 태어나서 생활하는 고장에 대한 자연적 애정을 근원으로 하여 자기가 더불어 생활하고 있는 이웃과 지역에 대해 친밀함을 갖고 외부의 인간에 대하여 경계를 느끼는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하나, 2006) 그리고 안성호(2011)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훈안보 인식의 문제점과 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낮고 특히 청소년의 보훈안보 의식이 매우 심각히 낮은 수준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훈안보 거버넌스²⁾ 연계활동을 활성화 방안이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외 김현욱(2012)의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보훈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데 있으며 초등과 중등간 보훈의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광태(2010)의 청소년 보훈선양교육의 활성화 방안연구에서 청소년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홍보와 보훈 교육 실행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하였다. 그리고 박효종(2005)의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나라사랑 교육 연구에서는 현행 나라사랑 교육의 문제점과 애국심의 도덕적 위상을 중심으로 연구된 바 있다. 그 외 나라사랑의식, 애국심,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선행 논문은(김현욱, 2013; 정숙경 2009; 보훈교육연구원, 2012; 안중현, 2001; 김은희, 2008; 김태훈·서강식·이범웅·박찬석, 2006; 김현자, 2000; 송미원, 2006; 임기숙, 2010; 황규호, 2012; 정하나, 2006) 등이 있다.

2. 분석의 틀

2) 정부의 정책수립 및 행정 활동에 민간 사회단체들의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수립하는 활동을 의미



<그림 1> 분석의 틀

III. 결과분석

1. 연구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구·경북지역 각각 2개 총4개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각 특성별 세부항목 빈도를 분석하면 성별은 남자 81명, 여자 200명이었고, 연령은 20세 44.5%, 주거형태 자가주택이 51.6%, 보훈과목 수강 경험은 85.8%로 미수강이 가장 많았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48%, 2학년 40%, 4학년 8.2%, 3학년 2.8% 순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 14.6%, 개신교 7.1%, 천주교 6%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빈도	퍼센트	변수		빈도	퍼센트	
성별	남	81	28.8	보훈과목수강	없다	241	85.8	
	여	200	71.2		있다	40	14.2	
	합계	281	100.0		합계	281	100.0	
연령	20세	125	44.5	학년	1학년	135	48.0	
	21세	100	35.6		2학년	115	40.9	
	22세	9	3.2		3학년	8	2.8	
	23세	24	8.5		4학년	23	8.2	
	24세	10	3.6		합계	281	100.0	
	25세이상	13	4.6		가족형태	혼자산다	47	16.7
	합계	281	100.0			배우자와 돌이서 산다	6	2.1
주거형태	자가주택	145	51.6	2대가 산다		193	68.7	
	전세	46	16.4	3대가 산다		10	3.6	
	월세	42	14.9	기타		25	8.9	
	영구임대	4	1.4	합계		281	100.0	
	기타	44	15.7	종교없음		188	66.9	
	합계	281	100.0	불교	41	14.6		
병역의무	비해당	247	87.9	종교	개신교	20	7.1	
	면제	7	2.5		카톨릭	17	6.0	
	이행	27	9.6		기타종교	15	5.3	
	합계	281	100.0		합계	281	100.0	

2. 성별에 따른 애국심, 보훈인물, 기념일 인식도 수준

애국심에 대한 인식도 분석은 남자의 경우 3.5점, 여자는 3.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그 외 보훈인물에 대한 인식도는 남녀 각각 1.9, 1.6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기념일의 경우 남녀 각각 3.5, 3.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2> 성별에 따른 애국심, 보훈인물, 기념일 인식도 분석

변수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애국심	남	81	3.46	.407	2.618	130.226	.010**
	여	200	3.32	.349			
보훈인물	남	81	1.89	.857	1.509	123.850	.134
	여	200	1.63	.688			
기념일	남	81	3.51	.552	.902	.279	.368
	여	200	3.44	.606			

3. 병역유무별 애국심, 보훈인물, 기념일 인식도 수준

애국심에 대한 병역유무별 인식도 수준은 애국심의 경우 병역 이행자자가 3.6점으로 가장 높았고

(P,0.001) 보훈인물의 경우 면제자 2.0점, 기념일은 병역 이행자가 3.5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병역 유무별 애국심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3> 연구대상자의 병역 유무별 인식도 분석

변수	병역의무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애국심	비해당	247	3.34	0.35	9.766	.000
	면제	7	3.37	0.59		
	이행	27	3.66	0.38		
보훈인물	비해당	247	1.66	0.74	.720	.487
	면제	7	2.00	0.95		
	이행	27	1.71	0.73		
기념일	비해당	247	3.45	0.60	.598	.551
	면제	7	3.38	0.63		
	이행	27	3.57	0.50		

4. 일반적 특성별, 애국심, 보훈인물, 기념일별 상관관계 분석

일반적 특성별 상관관계 분석은 학년과 연령의 경우 양의 관계가 성립하였고 보훈과목 수강자의 경우 연령과 학년에 따른 양의관계를 보였다. 특히 병역의무와 연령, 학년, 보훈과목 수강 유무별간 유의미한 수준을 나타냈다. 애국심과 병역 이행과의 관계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보훈인물, 연령, 학년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성립되어 유의성이 검증되었다(P<0.01).

<표 4> 변수별 상관관계 분석

	연령	학년	보훈과목	병역의무	애국심	보훈인물	기념일
연령	1						
학년	.763**	1					
보훈과목수강	.275**	.288**	1				
병역의무	.539**	.242**	.158**	1			
애국심	.098	-.020	.022	.251**	1		
보훈인물	-.165**	-.207**	-.083	.031	.064	1	
기념일	.028	.034	-.019	.056	.220**	.094	1

※ *P<0.01

5. 특성별 보훈인식도

보훈제도 인식도와 관련한 대학생들의 질문에 알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전체 53%로 절반을 넘게 나타났고, 국가유공자의 나라에 대한 기여도는 기여하였다가 63%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동에 대한 질문은 감동하였다 라는 응답이 전체 63%로 나타났고, 보훈단체에 대한 의견은 호의적이다가 36%로 비교적 낮은 결과로 나타났다. 보훈시설 방문은 한 두 차례 방문이 47%로 가장 많았고, 국가유공자 치우는 낮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49%로 절반을 차지하였다. 우방국과의 유대관

계는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62%로 나타났다.

<표 5> 보훈 인식도 빈도 분석

구분	인식도	빈도	퍼센트	구분	인식도	빈도	퍼센트
보훈 제도 인식	전혀 모른다	37	13.2	보훈 단체에 대한 호의도	전혀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6	2.1
	별로 알고 있지 않다	112	39.9		그다지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24	8.5
	보통이다	87	31.0		보통이다	149	53.0
	어느정도 알고 있다	41	14.6		대체로 호의적으로 생각한다	69	24.6
	잘 알고 있다.	4	1.4		매우 호의적으로 생각한다	33	11.7
	합계	281	100.0		합계	281	100.0
국가유 공자의 국가 기여도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14	5.0	보훈 시설 방문	한달에 한번 이상	6	2.1
	별로 기여하지 않았다	35	12.5		1년 1번이상	26	9.3
	보통이다	56	19.9		2-3년 한번	53	18.9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87	31.0		지금까지 한두차례 방문	131	46.6
	크게 기여하였다.	89	31.7		전혀 방문 하지 않음	65	23.1
	합계	281	100.0		합계	281	100.0
국가유 공자에 대한 감동	전혀 그렇지 않다	4	1.4	국가유 공자 처우	매우 낮은 수준	72	25.6
	별로 그렇지 않다	20	7.1		약간 낮은 수준	66	23.5
	보통이다	74	26.3		비슷한 수준	81	28.8
	가끔 그렇다	119	42.3		약간 높은 수준	46	16.4
	자주 그렇다	64	22.8		매우 높은 수준	16	5.7
	합계	281	100.0		합계	281	100.0
				우방국 유대관계	전혀 그렇지 않다	3	1.1
					별로 그렇지 않다	14	5.0
					보통	90	32.0
					그렇다	100	35.6
					매우 그렇다	74	26.3
					합계	281	100.0

6. 보훈 인식도 수준

보훈 인식도 수준을 분석하면 국가유공자 기여도는 남녀의 경우 각각 3.8, 3.7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동은 3.7, 3.8점으로 나타났다. 보훈단체에 대한 호의도는 남녀 각각 3.3, 3.4점, 보훈시설방문은 각각 3.8점으로 같게 나타났다. 국가유공자의 처우는 2.6, 2.5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6> 성별 보훈인식도 수준 분석

변수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국가유공자 기여도	남	81	3.77	1.154	.421	279	.674
	여	200	3.70	1.190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동	남	81	3.69	1.032	-.947	129.507	.345
	여	200	3.82	.880			
보훈단체에 대한 호의도	남	81	3.28	1.015	-.759	123.453	.449
	여	200	3.38	.812			

<표 6> 성별 보훈인식도 수준 분석(계속)

변수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보훈시설 방문	남	81	3.79	1.021	-.038	279	.970
	여	200	3.80	.953			
국가유공자의 처우	남	81	2.60	1.320	.664	279	.507
	여	200	2.50	1.147			
우방국과 협조	남	81	3.80	1.042	-.096	127.327	.924
	여	200	3.82	.869			

7. 보훈인식도와 관련한 상관관계 분석

보훈인식도와 관련한 상관관계 분석에서 보훈제도 인식과 학년간의 음의 관계가 성립하였고, 국가유공자의 기여도와 연령간 양의 관계, 보훈단체 호감도와 보훈제도 인식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동간의 양의 관계가 성립되었다. 보훈시설 방문과 보훈제도 인식도, 국가유공자의 기여도간의 양의 관계가 성립되었고, 국가유공자 처우와 연령, 학년 국가유공자 기여도, 보훈시설 방문간 음의 상관관계, 보훈제도 인식도간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되었다. 우방국과의 유대관계와 연령, 학년, 병역유무 국가유공자 기여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동, 보훈시설 방문간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하였다(P<0.05, P<0.01).

<표 7> 보훈인식도와 관련한 상관관계 분석

	연령	학년	보훈과목	병역의무	보훈제도 인식도	국가유공자 기여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동	보훈단체에 대한 호감도	보훈시설 방문	국가유공자 처우	우방국과의 유대관계
연령	1										
학년	.763**	1									
보훈과목	.275**	.288**	1								
병역의무	.539**	.242**	.158**	1							
보훈제도 인식	-.075	-.180**	.027	.111	1						
국가유공자 기여도	.143*	.109	.037	.106	.005	1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동	.090	.107	.064	.054	-.009	.192**	1				
보훈단체에 대한 호감도	.000	-.030	-.001	-.003	.187**	.159**	.079	1			
보훈시설 방문	.061	.039	.076	-.033	-.172**	.158**	.001	-.145*	1		
국가유공자 처우	-.129*	-.141*	-.104	-.021	.245**	-.299**	-.177**	.066	-.203**	1	
우방국과의 유대관계	.157**	.173**	.106	.138*	-.155**	.211**	.144*	.087	.128*	-.226*	1

※ *P<0.05 **P<0.01

8. 대학생들의 통일·안보에 대한 인식도

대학생들의 통일·안보에 대한 인식도 분석에서 통일이 몇 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통일되지 않는다가 전체 62%로 가장 많았고, 20년 이내 16%, 10년 이내 10%로 순이었다. 북의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적의 타격한 만큼 대응한다가 43%로 가장 높았고, 2배 이상 응징한다가 40%, 대응하지 않는다가 11%였다. 천안함 사건은 누구의 소행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전체 89%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답하였으나 한국이라고 응답한 수치가 7%로 나타났다. 핵 개발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전체 66%가 미국 및 우방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한다고 응답하였고 한국도 개발해야 한다고 24%로 나타났다. 무인항공기의 추락과 관련한 응답에서는 북한 84%, 기타(제 3국)이 11%로 나타났다.

<표 8> 통일·안보에 대한 인식도 빈도분석

변수		빈도	퍼센트	변수		빈도	퍼센트	
통일 희망	3년	3	1.1	천안함 사건 소행	모름	8	2.8	
	5년	16	5.7		북한	250	89.0	
	10년	29	10.3		한국	19	6.8	
	20년	46	16.4		제3국	4	1.4	
	통일 되지 않음	174	61.9		합계	281	100.0	
	기타	13	4.6		핵 개발 대응 전략	한국도 개발해야 함	68	24.2
	합계	281	100.0			미국 및 우방국과의 동맹강화	186	66.2
			개발하지 않는 것이 좋음	20		7.1		
북의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	적의 타격에 2배이상 응징한다	111	39.5	추락 무인항공기 출처	기타	7	2.5	
	적의 타격한 만큼 대응한다	121	43.1		합계	281	100.0	
	대응하지 않는다	31	11.0		북한	236	84.0	
	기타	18	6.4		국내동호회	13	4.6	
	합계	281	100.0		기타	32	11.4	
			합계	281	100.0			

9. 대학생들의 통일·안보 인식도

대학생들의 통일·안보 인식도 분석에서 학생들이 통일을 얼마나 원하는가에 대한 응답이 남녀 각각 3.0, 2.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01), 통일이 경제발전 기여도는 2.8, 2.5점, 일자리 창출은 2.8, 2.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미는 없었다.

<표 9> 성별 통일·안보 인식도 분석

변수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
통일원함	남	81	2.95	1.293	3.853	279	.000
	여	200	2.36	1.107			
경제발전 기여도	남	81	2.83	1.292	1.862	126.682	.065
	여	200	2.53	1.070			
일자리 창출	남	81	2.83	1.253	1.568	279	.118
	여	200	2.59	1.104			

※ ***P<0.001

10. 대학생 통일·안보에 대한 상관관계

대학생 통일·안보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에서 보훈과목 수강 유무의 경우 학년 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병역의 경우 연령, 학년, 보훈교과목 수강에 있어 양의 관계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통일육구와 병역의무간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유의성이 검증되었으며 경제발전기여도와 병역의무, 통일육구 간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통일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 병역의무, 통일육구, 경제발전 기여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통일·안보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특성변수	연령	학년	보훈과목	병역의무	통일육구	경제발전 기여도	일자리 창출
연령	1						
학년	.763**	1					
보훈과목 수강	.275**	.288**	1				
병역의무	.539**	.242**	.158**	1			
통일육구	-.005	-.007	.101	.157**	1		
경제발전 기여도	-.010	.002	-.040	.169**	.607**	1	
일자리 창출	.126*	.073	.050	.138*	.478**	.520**	1

※ *P<0.05 **P<0.01

IV.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선조들의 보훈교육 정책을 살펴보면 신라시대 상사서, 고려시대 고공사, 조선시대 충의부를 통해 보훈 경연제도를 펼쳐 백성들에게 나라사랑 교육에 매진해 왔다(김중성, 2012). 본 연구의 대학생들의 애국심 등 보훈의식수준을 분석해 보면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변수별 보훈의식 수준이 매우 낮게 조사되어 보다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한 현실에 있다. 변수별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과 관련된 보훈의식 수준을 성별에 따른 분석은 남자에게서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본 연구 결과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애국심이 높은 이유는 군 복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군생활의 이념무장 교육을 통해 애국심이 높게 나타난 주 요인이라 사료되며 이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초·중·등 교육에 창의체험 및 특강 시간을 통해 보훈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훈인물의 경우 잘 알려지지 않은 호국보훈인물에 대해서 보훈의식 수준이 비교적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대학생의 경우 수능에 역사과목을 포함하지 않아 관심을 크게 두지 않은 주원인과 특히 역사과목 내용에 보훈인물에 대한 언급이 특정인에 대해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역사과목에 보훈 및 애국지사, 한국전, 베트남전쟁 영웅 등 호국보훈인물의 자세한 기

술과 강화 방안이 제기된다. 인구학적 특성별 상관관계 분석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학년과 연령의 경우 양의 관계가 성립하였고 보훈과목 수강자의 경우 연령과 학년에 따른 양의관계를 보였다. 특히 병역의무와 연령, 학년, 보훈과목 수강 유무별간 유의미한 수준을 나타냈는데 이는 군이라는 특성 성과 연령 그리고 보훈교과목의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애국심과 병역 이행과의 관계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보훈인물, 연령, 학년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성립되었고 보훈인식도와 관련한 상관관계 분석에서 보훈제도 인식과 학년간의 음의 관계가 성립하였고, 국가유공자의 기여도와 연령 간 양의 관계, 보훈단체 호감도와 보훈제도 인식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동간의 양의 관계가 성립되었다. 보훈시설 방문과 보훈제도 인식도, 국가유공자의 기여도간의 양의 관계가 성립되었고, 국가유공자 처우와 연령, 학년 국가유공자 기여도, 보훈시설 방문간 음의 상관관계, 보훈제도 인식도간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되었다. 우방국과의 유대관계와 연령, 학년, 병역유무 국가유공자 기여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동, 보훈시설 방문 간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하였다. 대학생 통일·안보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에서 보훈과목 수강 유무의 경우 학년 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병역의 경우 연령, 학년, 보훈교과목 수강에 있어 양의 관계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통일욕구와 병역의무간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유의성이 검증되었으며 경제발전기여도와 병역의무, 통일욕구 간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항목별, 변수별 애국심 및 보훈의식 수준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정책을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사랑 연구학교를 대학까지 확대해야 한다. 현행 학교별 나라사랑 연구학교 지원으로 연 1천 만원을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으나 대학생들의 보훈의식 수준이 매우 낮아 나라사랑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까지 확대해야 한다.

둘째, 보훈학술논문공모전 부활로 대학생 및 일반인의 나라사랑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보훈학술논문 공모가 부활되어야 한다. 세부적으로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최우수상은 교육부장관, 우수상, 장려상은 국가보훈처장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이 제기되며, 특히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입사 시 우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생 보훈 UCC 공모전 실시 방안이다. 대학생의 애국심 향상을 위해 보훈관련 UCC 공모전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초중등교원에게 실시하고 있는 나라사랑교수학습 경진대회와 같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 경진대회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공모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당선작에 대한 세부적 포상 방안으로 최우수상은 교육부장관, 우수상, 장려상은 국가보훈처장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이 제기되며, 특히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입사 시 우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국립한국보훈대학교 설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일반인,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유공자 가족의 보훈교육을 위해 국립보훈대학교 설립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되는 중요하고 시급한 당면 과제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크게 연구되지 않았던 대학생들의 애국심, 통일 및 안보의식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고 특히 특성별, 변수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으로 그 정책적 함의가 있다 하겠

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연구대상자를 대구경북 대학생들에 국한해 사용되었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전국 대학생들과 일반국민들에게 확대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본 논문이 향후 보훈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국가보훈처. 2013. 나라사랑의식지수.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2011. 국민보훈의식지수.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2009. 국민보훈의식지수.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2008. 국민보훈의식지수. 국가보훈처.
- 보훈교육연구원. 2012. 학교나라사랑교육체계화방안 연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대한민국국회. 2012. 나라사랑지원교육법 제정안 내부자료. 대한민국국회.
- 권기숙. 2012. 보훈의식 강화를 위한 국가 정체성 교육의 문제점 고찰. 한국보훈논총. 12(2): 79-116.
- 김예슬 외. 2008. 대학생의 보훈의식 향상에 관한 실증 연구. 국가보훈처 보훈학술논문집. 10: 1-39.
- 김현욱. 2013. 초중등학생 보훈의식 영향요인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3): 71-90.
- 김현자. 2000. 초등학교 아동들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인식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은희. 2008. 학교재량 활동을 통한 고등학생 민족정기 선양 내실화방안. 국가보훈처.
- 김종성. 2012. 보훈의 역사와 문화. 서울: 국학자료원.
- 목진휴, 형시형, 김희경. 2013. 나라사랑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보훈논총. 12(2): 47-77.
- 박효중. 2005. 청소년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정책적 고찰. 한국보훈논총. 4(1): 65-101.
- 송미원. 2006. 청소년대상 나라사랑정신 선양프로그램 종합 대책 연구. 한국정책학회.
- 안성호. 2011. 청소년 보훈·안보교육의 활성화 방안. 한국보훈논총. 10(4): 117-141.
- 안중현. 2001. 민족정기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태. 2010. 청소년 보훈선양교육의 활성화 방안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기숙. 2010. 고등학교에서 구가기념일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실시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숙경. 2009. 국가보훈의식의 선진화 방향과 과제. 한국보훈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정하나. 2006.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단체 운영방안 연구. 서울: 국가보훈처.
- 황규호. 2012. 글로벌시대 다문화국가의 애국심 교육방안 탐색. 교육학연구. 50(3): 229-251.
- Jeannotte, S and A. Aizlewood. 1999. *Drifting Away? Canadian Trust, Hope and Pride in a Global Economy*. London: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 Newton, K. 2007.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the Osgord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Oxford University Press.

- Smith, T. W. and S. Kim. 2006. National Pride in Comparative Perspective:1995/96 and 2003/04.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8(1): 127-136
- Smith, T. W. et. al. 2001. *National Pride in Cross- National Perspectiv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Tyler, T. R. 2006.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egitimacy and Legitim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7: 375-400.

김태열: “고엽제 환자의 우울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2003), 한국보훈학회 이사 겸 대구경북지회장, 한국인권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영남이공대학 보건복지학부 보건과학계열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논문으로는 “로사를 이용한 베트남 참전군인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2009)”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시 효율적인 응급의료구축 체계구축 방안(2010), 특수임무수행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연구(2013)” 등이 있으며 관심분야로는 고엽제질환, 전염병 및 인플루엔자정책, 재난대비 응급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보훈의료정책 등이 있다(ktypv@naver.com).